

2024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고린도후서

메시지 6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성경: 고후 4:4, 7, 골 1:15, 히 1:3, 요 1:18

- I.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A.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적인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반면에 보배는 우리의 내적인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B. 우리는 밖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지녀야 하고 속에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
 - C.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하고 충만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II.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 고후 4:4.
 - A. 그리스도의 복음은 밝게 하고 빛을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복음이다.
 - B.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히 1:3)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신다.
 - C.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충만,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 D.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비록 하나님 자신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형상은 보인다는 것을 함축한다 — 골 1:15.
 - E.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계시며, 이 형상은 그리스도이다.
 1.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한다.
 2.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 계신 인격,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신다 — 요 3:16.
- III.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 고후 4:7상.
 - A.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비추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이다.
 - B.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비추시는 것(고후 4:4, 6)은 우리 안에 보배, 영광의 그리스도를 이끌어 온다. 그분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 C.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비춤으로 인해 우리는 놀랍고 소중하고 기이한 보배를 갖는다.
 - D.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곧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신성한 공급의 근원이다 — 고후 4:7.
 - E.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보배’라는 표현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해서 말하는 6절에서 다음을 가리킨다.
 1.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비추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신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분을 아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 고후 4:6.
3. 고린도후서 4 장 6 절의 ‘얼굴’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고린도후서 2 장 10 절에서 ‘인격’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하다. 이것은 눈언저리 부분으로서,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러한 표정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4.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의 표정이 없으면 그분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실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 a.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 b. 한 면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질그릇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는 보배라고 선포할 수 있다.
 - c. 다른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면서 그분의 존재의 표정을 바라볼 때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배이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고후 2:10.
- F.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담은 그릇으로 창조하신 것이었다 — 창 2:7.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귀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 롬 9:21, 23, 고후 13:14.
 2. 신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릇인 믿는 이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들 자신을 그분께 계속 여는 것임을 보여준다 — 롬 9:21, 23, 고후 3:16.
 3. 우리가 우리 존재의 깊은 속에서 주님께 열려 있지 않다면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수 없고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 없다 — 고전 2:10.
 4. 열린 그릇이 하는 것은 오직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 자신을 계속 열어 두는 것이다 — 고후 13:14.
 5.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 — 엡 3:19.
- G.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약하다. 그러나 그릇인 우리 속에 있는 보배는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어 그분께서 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모든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 이것이 합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 엡 3:17, 갈 2:20.

IV.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 고후 4:7 하.

- A.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1.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는 다만 질그릇일 뿐이다. 우리는 죄로 가득하고 타락했고 비천하다.
 2. 그러한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거나 복음의 영광을 비추어 낼 능력이 없다 — 고후 4:4.
- B. 비록 우리는 가치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보배를 우리 안으로 비추어 넣으셨다.
 1. 이제 이 보배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내고 진리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 고후 4:7 상.
 2. 이 보배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은 탁월하다.
- C. 외적으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적으로 우리는 지극히 귀한 보배,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 고전 15:45.
- D.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
- E.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단지 구속자가 아니라 우주 안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을 받아들였다.
- F. 우리는 내적으로 보배이시고 외적으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